

나주시, 내년 국고지원사업 발굴 속도 낸다

66건·8139억원 발굴·점검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등

나주시가 내년도 국고 확보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나주시는 1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고 지원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선 민선 8기 공약을 비롯, 주

요 현안사업과 연계된 신규·공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공모·계속사업 등 총 66건, 8139억원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 대응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주요 건의 사업으로 국립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450억원), 교육빅데이터 플랫폼 구축(71억원), 국립마한역사 문화센터 유치(400억원), 나주화남산업 문화재생(420억원), 금성산 야생늪차 숲 공간 재창조(100억원), 나주 영산지구 배수개선(124억원), 나주천 하천유지용

수 취수시설 항구개선(23억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10억원) 등이다. 조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비롯해 계속 사업인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등 에너지산업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나주시는 중앙부처 예산 신청 기간인 4월말까지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 전남도를 대상으로 국고 확보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고건의사업과 함께 균특전환사업 별도 관리, 민자 유치 방안 검토, 영산강 통합하천사업·저류지 국가생태정원 조성·푸드테크·전력반도체 등 지역 현안사업 관련 건의 사업 추가 반영 등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귀농·귀촌 영농기초 교육생 모집 영광군, 안정적 농촌정착 목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40명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농기초 기술교육은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며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년 2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상반기 교육은 5월2일까지 매주 1회 화요일마다 4시간씩(견학 8시간 포함) 총 9회 40시간으로 운영된다. 농촌의 이해 및 성공적 귀농 설계, 농산물 마케팅 교육, 미생물의 활용 등과 딸기, 고추, 과수 등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작목별 재배기술도 병행된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및 신규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신청 가능하며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350-55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추진 곡성군, 초등생 전학년 대상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올해 전남 최초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영구치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만 7세 전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로 충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치과 주치의 사업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 격차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곡성군 치과의사회, 교육지원청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료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치과의원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이후 치과의원을 방문해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서와 개인 정보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치석 제거,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예방 진료다. 이는 지난해 곡성군의회 조대현 의원이 초등학생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다.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노력의 산물인 만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구강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군민 구강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이 지난 12일 담주 다미담 예술구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15동·30실 '담주 다미담 예술구' 상가 오픈

문화·전시·창업·상업 공간 구성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지난 12일 담빛담루 광장에서 이병노 담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주 다미담 예술구의 개장식을 열고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17년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디자인시범거리, 담빛담루 조성사업 등에 선정되어 2634㎡ 부지

에 총 96억원을 투입 건물리모델링 및 신축을 진행했다. 총 15동, 30실의 담주다미담 예술구는 △전통차, 자수, 목, 유리 등 공예와 책방 등 문화예술 공간 △예술 및 영상 기획전 시공간 △먹거리와 굿즈, 소품샵 등 청년 창업 공간 △카페, 베이커리와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업공간으로 구성됐다. 개장식은 식전행사로 농악대의 풍물놀이와 상인회의 변명과 안녕을 위한 고사(告祀), 본 행사로는 국민의례, 내빈소

개, 기념사(축사),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이뤄졌으며 개장식 후 초청 인사들의 장보기 행사도 진행됐다. 군은 관광지와 원도심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주 다미담 예술구가 다양한 콘텐츠로 즉흥원과 관광제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도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담양의 새로운 문화 거점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영농 전 토양검정 무료 서비스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본격 영농철에 앞서 농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정확한 양분상태를 파악해 작목별 필요 시비량을 확인할 수 있고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석회 소요량, 전기전도도(EC) 등 토양화학적 성질을 정밀 분석해 작목에 적합한 비료사용량을 알려줄 수 있다. 비료를 적정한 양만큼 사용하면 농경지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 염류집적을 예방할 수 있다. 토양검정은 경작지가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실시하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료 채취용 봉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검정 결과는 2주 소요되며 병원 처방서처럼 내 땅의 양분 함량을 알 수 있고 어느 양분이 많고 적은지 부족한 양분은 비료를 얼마나 더 줘야할지가 표시된 '비료사용처방서'가 발부된다. **박간재 기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남도 지원으로 2015년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행사 등 저작권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센터는 저작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산학연관,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저작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통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인용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저작권 권리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저작권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저작권 기반 산업 발전에 앞장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영광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의 매점·음식

점·문구점 등 31개소 업체로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자, 빙과류, 탄산음료 등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무신고 영업 △영업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포함) 여부 △

조리된 음식 위생적 취급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위생 불량 또는 위해 우려 식품은 수거·검사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확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구례군, 군민 건강 보장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구례군은 군민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영양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지원

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6가지 식품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대상자 720명에게 월 1~2회로 나눠 최대 1년간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원에서 지난 9일 식품배출 위탁업체에 대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관리를 지도·점검하고 위생교육을 시행했다. 사업 추진 시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감자와 당근 등 제품을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공급식품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신선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